

## 안전애착, 5요인성격, 미래시간 관점이 생산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

이 주 일†

한림대학교

나이가 들어서도 생산적인 노년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사회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추구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이라는 4가지 차원의 생산적 노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471명을 대상으로 생산적 노년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성, 연령, 배우자 유무, 월 소득, 학력, 일자리 유무, 일하는 시간은 4가지로 측정된 생산적 노년과 모두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5요인성격, 안전애착, 미래시간관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 하였는데, 5요인성격 중에서는 개방성이 생산적 노년과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고, 성실성도 높지는 않지만 생산적 노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안전애착은 생산적 노년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고, 미래시간관은 생산적 노년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위계적 회귀 모형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통제된 후에도 5요인성격과 미래시간관은 생산적 노년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요인성격 중에서는 개방성이 일관되게 생산적 노년을 설명해주었고, 미래시간관도 생산적 노년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개방성, 안전애착은 노인들이 생산적 노년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며, 미래시간관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적 노년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생산적 노년, 목표추구, 경력개발, 가족지원, 자원봉사, 5요인성격, 경험에 대한 개방성, 안전애착, 미래시간관점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특성화사업비(HRF-S-2-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3A2-033609).

† 교신저자 : 이주일,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jilee@hallym.ac.kr, 010-9244-9269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대 생산인구에 비해 60대의 생산인구가 더 많다는 보고가 나왔다(매일경제, 2013).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 인구조사결과를 보도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20대남성의 취업자는 11.98%인데, 60대 이상남성의 취업자는 12.52%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011년보다 6.3%(10만 7000명)가 늘어나 180만 2000명에 달하였다. 여성의 경우취업자 수는 30대는 20.53%, 50대는 20.94%로 50대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50대 취업자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0년 전에는 전체 인구 중 20대 비중은 16.9%였지만 2012년에는 13.6%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의 취업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1.9%에서 1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의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바로 일하는 노인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참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세이며 당연히 받아들이고 적응해야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기여활동은 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된다. 선택하는 조직, 일하는 분야, 관심있어 하는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기도 하며 불행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편안히 쉬고 여유를 즐겨야 할 시기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용돈마련이나 여가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건강유지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위해 일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는 젊은 사람들의 일과 보다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 노인들의 일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하는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생산적 노년이라는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생산적 노년은 Caro, Bass 그리고 Chen(1993)에 의해 처음 체계적으로 학문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 졌는데, 이들은 생산적 노년을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는데 기여하거나, 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화에서 그들은 단순히 급여가 주어지는 유급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나 각종 시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가족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행동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자기개발활동을 포함하여 생산적 노년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정의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및 유경(2011)이 생산적 노년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생산적 노년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 후, 이 문항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토대로 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국내 노인들에 대한 생산적 노년정도를 측정하고자 만들어진 이 척도는 20대부터 70대 까지 1,000여명에게 해당 문항이 생산적 노년의 활동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였고, 이 연구에서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목표추구활동하기,

경력개발활동하기, 가족지원활동하기, 사회봉사활동하기의 4차원에 대해 각 차원 당 5문항씩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년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들이 이러한 생산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생산적 노년활동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와 이런 생산적 노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직접 알아볼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년활동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인들은 무엇이고, 이와 더불어 주요한 심리학적 변인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 변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적 노년을 이끌어 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생산적 노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예측요인

생산적 노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의 바람이고 꿈일 것이다(Trafford, 2004).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바람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이 처한 경제적여건, 신체적 여건과 같은 환경조건에 따라 생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노년을 연구하는 또 다른 개념인 성공적 노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Rowe와 Kahn(1998)은 7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미국 내 70대 노인에 대한 성공적 노화의 결정요인으로 첫째, 질병과 장애의 부재 및 그 위험요소가 없는 것, 둘째, 높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유지, 셋째 적극적인 인생참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중 적극적인 인생참여라는 부분이 생산적 노년의 개념과 많은 중

첩을 이루고 있다. 성공적인 노년을 결정하는 인구학적 변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Rowe & Kahn, 1998; 권중돈과 조주연, 2000; 김원배, 2009; 성혜영과 조희선, 2005). 먼저 Rowe와 Kahn(1998)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인종, 결혼상태, 수입, 교육이었다. 김원배(2009)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활동요인과 자원요인을 구분하고 자원요인으로 경제력요인, 건강요인, 사회적 관계요인, 공적자원요인을 제시하였다. 임은기와 정태연(2009)은 한국노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서울노인 31명과 지방노인 74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 월 소득, 지병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생산적 노년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며, 더욱이 심리학분야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공적 노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산적 노년과 관련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유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의 유무, 일하는 시간을 선정하였다.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가지는 의미를 인구학적인 의미나 정책수립적인 의미를 다루고 제시하는 것은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만을 선택

해서 심리적 변인들의 설명요인에 대한 분석 시 통제변인들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에서 먼저 남성과 여성은 삶의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삶에 있어 성차에 관심을 갖고 생산적 노년활동에 있어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 간에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지만, 박기남(201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노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이 차이는 서울보다 지역에서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보살핌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사회구조 탓일 가능성이 크다. 즉, 주로 남성 위주로 운영되는 사회구조상의 영향으로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생산적 노년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은 어느 정도 건강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연령 또한 생산적 노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노인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동할 것은 분명하다. 이주일 등(2011)의 연구에서도 젊은 사람들일수록 노인들이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에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사람들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젊을수록 건강한 노인이 많을 것이므로 연령 또한 생산적 노년과 중요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과 학력 또한 노인연령대의 개인이 정상적인 인생경력에서 은퇴한 후 추가적인 역할을 더 하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과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보다 사회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헌기, 2009).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생산적 노년과 관련되는 이유를 학자들(Wilson, 2000; 이헌기, 2009)은 인적 자본이론으로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노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 기술, 소득과 같은 자원들은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기회와 또 다른 자원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이헌기, 2009). 이런 입장을 검증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이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 예측을 한다(Kim, Kang, Lee, & lee, 2007; 이헌기, 2009). 이런 연구들의 논리와 같이 소득이나 학력수준은 생산적 노년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는 노인들의 삶에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중요해지는데(김영범, 박준식, 2006), 이의 핵심이 가족이라고 할 때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는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이헌기(2009)는 배우자 유무를 노인이 가지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규정을 하였는데, 다양한 이웃이나 친구, 정치활동 및 종교 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족의 구성이 개인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모델을 한국 노인들

에게 적용한 성혜영과 조희선(2005)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유무 등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이 유급노동, 자원봉사, 단체활동, 학습활동, 가사노동, 손자녀 돌보기로 측정된 생산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자녀 유무를 생산적 노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측정하고 이들 변인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활동의 일환으로 시니어 센터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인을 연구에 포함하였고 이들이 주당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왜냐하면 일자리 참여여부와 일하는 시간은 노인들의 삶의 현상을 알려주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연령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김진옥, 손지운, 2009; 안효철, 2005; Choi, 2003).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은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Choi(2003)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전국 표본 6,465명을 분석하였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더 많았다. 이에 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연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 시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일제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과 참여하지 않는 비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노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유무가 생산적 노년에 참여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 되어서 하는 일이 전일제 보다는 파트타임 일 경우에 생산적 노년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노인이 되어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 궁핍으로 어쩔 수없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가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젊은 시절 하던 일의 연장선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렇게 일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은 또한 개인에게 다양한 의미를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외에도 친구관계나 과거 직장의 유형, 주거형태, 현재 하는 일의 유형,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생산적 노년과 관련이 있을 것이지만 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모든 요인을 고려할 수는 없었다.

#### 성격, 안전애착 및 미래시간관점과 생산적 노년

생산적 노년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산적 노년을 보내는 활동과 관련있을 심리적 변인 역시 다양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성격, 안전애착형성 및 미래시간관점이 생산적 노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안전애착과 생산적 노년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지는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애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우리의 삶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Bowlby, 1980; Bradley & Cafferty, 2001), 이중 안전 애착이 노인들의 삶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안전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삶에 통제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주일, 강연옥, 박군석 및 유경, 2009). 또한 노인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일, 2004). 또한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보다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opik, Edelstein & Fraley, 2013) 이는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주기에 따라 각 개인이 처리해야 할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애착형성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hopik 등(2013)은 86,555명에 달하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성인기의 애착에서 나타나는 연령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인초기와 성인 후기에 비해 성인중기에 불안애착과 회피애착과 같은 불안정 애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후기라 할 수 있는 노인은 성인중기보다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들이 불안 및 회피애착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예를 들어 결혼 상태 유무에 따라 유결혼자가 보다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하게 되고, 노년에 들어서면 중년기보다는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하게 되고, 이런 안정적인 애착형

성 유무가 개인에게 노년기 들어서 삶의 형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Feeney와 Thrush(2010)의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탐색활동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탐색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생산적인 활동과 부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Kims 등(2007)의 연구와 Hendricks와 Cutler (2004)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적었다. 이들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은 굳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나 혼자 사는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및 정서적 만족을 찾으려 한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생산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생산적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안전애착형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계도 욕구 충족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와 같이 다양한 예측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한 노인들은 Feeney와 Thrush(2010)의 결과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활동을 하려고 하고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Hendricks와 Cutler(2004)의 예측과 같이 안전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런 애착형성을 다른 곳에서 추구하고자 할 수도 있다. 즉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된 사람들은 굳이 외부에 나가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성격과 생산적 노년

성격특성은 생산적 노년을 보내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성실성이나 외향성, 또는 우호성이 직무성과와 관련이 된다(Barrick, Mitchell, & Stewart, 2003). 5요인 성격변인들과 직무 수행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성실성이 직무 수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x & Britt, 2008; Johnson, 2003). 기존 학자들은 성실성이 직무 수행을 예측하게 해 주는 이유로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무 지식을 쌓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성실한 사람들은 보다 목표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든다(Jex & Britt, 2008). 이외에 직무성과를 결정해주는 요인들로 외향성과 우호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는데 특히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에서 이 두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arrick & Mount, 2005). 한편 최근 들어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Gregory, Nettleback 및 Wilson(2010)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아이디어나 가치관 등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ubelet와 Salthouse(2010)의 연구에서는 개방성과 인지기능 활성화간의 관계에서 활동적인 참여가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Hogan, Staff, Bunting, Deary 및 Whalley(2012)의 최근 연구에서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활동적 참여가 노인들의 언어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ox, Witt, Olson 및 McAdams(2010)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5요인 성격, 생성감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각기  $r = .26, .21$ ). 특히 이 연구에서 개방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사회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노인의 활동이나 성공적 노화에 있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특정한 관념이나 가치관에 고착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개방적인 노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 시간관점과 생산적 노년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물리적 나이보다 개인이 자신의 연령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Barnes-Farrell & Matthews, 200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보다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더 많은 결과물을 산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구분 짓는 요인 중에 개인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에서도 자신이 해당조직에 근무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많이 차이가 난다. 아직 해당조직에서 자신이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

는 사람은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치를 두고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 Tracey, 2012). 미래시간관점을 가지는 것은 22세에서 88세 사이의 성인들의 신체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예측하였다(Stahl & Patrick, 2011). 즉, 미래에 자신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다 신체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미래시간관점을 가진 학생들은 보다 자기조절적인 학습방략(지속, 긍정적 태도, 집중, 시간관리, 중심아이디어 선택 및 정보 처리 등)을 취하고, 외부강요에 의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만족감과 흥미를 위해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lde, Vansteenkiste & Lens, 2012). 이와 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의미를 두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온 노인들에게 미래시간에 대한 관점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아직도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남은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에 따라 행동양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며, 특히 생산적 노년을 보내는 데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안전애착, 성격변인, 미래시간 관점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

시간관점은 앞서 설명한 성격, 안전애착과 같은 심리변인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개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미래적인 시간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안정적 애착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미래시간관점을 가진 사람은 보다 생산적 노년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성격, 욕구충족 및 안전 애착이 노인이 가지는 시간관념과 상호작용하여 생산적 노년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간관점은 성격변인과 안전애착이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과정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방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Johnson, 2003). 나이가 들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더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익숙한 생활에 몰입하려고 할 수 있다(Carstensen, Issacowitz, & Charles, 1999). 선택적 최적화 및 보완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익숙한 선택을 하고 그곳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더 길게 보고 새로운 일을 더 하려고 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정리하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지향성을 적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안전애착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에서 미래시간관의 이런 매개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주요 가설 또는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적 노년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있으며, 이런 인구사회학적 조건들에 따라 생산적 노년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격변인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생산적 노년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전애착은 생산적 노년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넷째, 미래에 대한 시간관점은 생산적 노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시간관점은 안전애착과 상호작용하여 생산적 노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시간관점은 안전애착과 개방성을 매개하여 생산적 노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방법

####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471명이었다. 65세가 안된 응답자 27명의 데이터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에 포함한 471명중 남성은 143명(30.4%), 여성은 328명(69.6%)이었고, 연령범위는 65세에서 95세 사이였다.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살지 않는 참여자가 190명(40.3%), 기혼이거나 동거 중으로 배우자와 살고 있는 참여자는 281명(59.7%)이었다. 응답자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6명(1.3%)에 불과했고, 나머지 465명(98.7%)은 자녀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354명(75.3%), 100만원-200만원 사이가 77명(16.3%), 200만원 이상이 39명(8.3%)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108명(22.9%), 초등학교 졸업이 158명(33.55%), 중학교 졸업이 69명(14.6%), 고등

학교 졸업이 81명(17.2%), 전문대 이상 졸업이 55명(11.7%)이었다.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91명(40.6%),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280명(59.4%)이었다. 일자리 참여 시간은 주 1일이 16명(3.4%), 주 2일이 87명(18.5%), 주 3일이 129명(27.4%), 주 4일이 39명(8.3%), 주 5일 이상이 5명(1%)이었다.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한계로 인해 임의표집을 하였으며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이 고루 참여하도록 하였다.

#### 측정척도

생산적 노년과 이를 결정하는 변인들로 설정한 변인들은 아래와 같은 척도들이었다.

#### 생산적 노년

우선 생산적 노년을 측정하는 문항은 Caro, Bass 및 Chen(1993)이 제시한 생산적 노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 노인에 대한 생산적 노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주일, 강연옥, 김지현 및 유경(2011)이 개발한 생산적 노년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생산적 노년을 인생목표를 위한 활동, 경력개발활동, 관계지원활동, 지역 및 사회 봉사활동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주일 등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각기 .78, .90, .84,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각기 .74, .85, .79, .71이었다.

####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앞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유무, 소득, 학력, 일자리 유무,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였다. Wilson(2000) 및 Okun과 Michel(2006)의 구분에 따르면 성별, 연령의

차이는 인구학적 차이, 학력, 소득, 일자리 유무, 및 일하는 시간의 차이는 인적 자본의 차이, 배우자 유무, 자녀유무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기혼과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배우자 없음은 미혼, 이혼(별거), 사별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소득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일자리 유무는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유무로 측정하였고, 일하는 시간은 주 며칠을 일하는지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 안전애착

청소년의 안전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eenberg, Siegel 및 Leitch(1983)가 개발한 안전애착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이주일 등(2011)이 한국에서의 노인들의 애착성향을 측정하도록 약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문항 중 6문항이 비안전 애착을 나타내는 문항이고 두 문항이 안전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되어있어 6문항을 역코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신뢰하지만, 가끔 이런 신뢰에 의심이 갈 때가 있다'이다 이 문항은 역 코딩되었다. 이주일 등(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6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9였다.

### 5요인 성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격척도는 Goldberg(1999)의 5요인 성격에 대해 국제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 시킨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한 척도(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및 노혜미, 2006)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외향성은 .67, 성실성은 .65, 우호성은 .65, 정서적 안정성은 .46,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70이었다. 정서적 안정성이 신뢰도가 낮은 것은 역 코딩을 해야 하는 문항이 3개가 포함된 것이 이유로 보인다. 노인들로부터 응답을 받을 경우에 역코딩하는 문항이 반반 포함될 경우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미래시간관점

시간관점은 Lang과 Carstensen(1994)이 생애 후기의 사람들이 가지는 미래시간관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관점 척도를 국내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김민희, 2008)를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 10문항 중 5문항만으로 측정하였는데,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5문항 중 역코딩을 해야 하는 두 문항(시간이 막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진다)이 나머지 세 문항과 구별되어 다른 차원으로 인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3문항만으로 미래시간관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미래 시간관점 문항은 '앞으로도 내게 많은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내 미래가 끝없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이었고 이 세 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3이었다.

### 연구방법

노인들에 대한 조사는 직접방문조사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글을 못 읽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 작동의 어려움으로 설문에 직접 응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90세에 해당하는 노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하는 노인들은 시니어 클럽, 노인 복지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이들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창업 모델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는 노인들이었고, 일자리 종류도 공동작업장, 제조 및 유통, 서비스업, 자원재활용품사업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하였다. 일하지 않는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회관, 노인회관 등에 참가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 연구결과

###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생산적 노년의 4가지 활동인 목표추구활동, 경력개발활동, 관계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과 관련있는 변인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관련된 상관은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성격, 애착 미래시간관, 생산적 노년 변인들 간의 상관은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련성을 보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자녀유무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월 소득, 학력, 일자리 유무, 일하는 시간 모두 생산적 노년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먼저 성별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생산적 노년의 4차원(목표추구활동, 경력개발활동, 관계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r=-.35, -.24, -.24, -.41$ ), 연령이 적을수록 생산적 노년을 보내는 것과 더 관련이 많았으며( $r=-.26, -.26, -.28, -.30$ ),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생산적 노년에 더 많이 참가하였으며( $r=.27, .23, .23, .29$ ), 소득이 많을수록 생산적 노년을 더 보낼 가능성이 많았고( $r=.28, .27, .19, .30$ ),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적 노년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r=.51, .54, .37, .54$ ),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생산적 노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았으며( $r=.62, .55, .41, .59$ ),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목표추구활동과 경력개발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r=-.15, -.21$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유무는 생산적 노년과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가족지원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주당 일하는 시간을 측정한 관계로 일자리 사업 참여유무와 일하는 시간간의 관계는 알 수 없었다.

5요인 성격특성 중에서는 성격요인 간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개방성과 성실성은 생산적 노년의 네 활동 모두와 대부분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개방성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련성( $r=.39, .45, .31, .39$ )이 특히 성실성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련성( $r=.10, .11, .10, .08$ )보다 그 크기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외향성과 안정성은 생산적 노년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고, 우호성은 목표추구활동과  $-.09$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나머지 활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한편 안전애착과 노인이 가진 미래시간관은

표 1.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2. 연령	.023	-								
3. 배우자유무	-.383***	-.255***	-							
4. 자녀유무	.049	-.069	.022	-						
5. 월소득	-.307***	-.222***	.263***	.025	-					
6. 학력	-.494***	-.328***	.400***	-.027	.470***	-				
7. 일자리유무	-.348***	-.340***	.282***	-.057	.227***	.588***	-			
8. 일하는 시간	.20	.126*	-.046	.009	-.277***	-.255***	.	-		
9. 외향성	.090	-.022	.033	.016	-.007	-.046	-.078	.013	-	
10. 우호성	.234***	.005	-.066	-.036	-.027	-.161***	-.156***	.022	.649***	-
11. 성실성	.114*	.028	-.017	-.035	-.024	-.046	-.019	.045	.488***	.665***
12. 안정성	-.045	.028	.068	-.038	.045	.075	-.012	-.079	.183***	.015
13. 개방성	-.146***	-.112*	.180***	-.021	.182***	.416***	.342***	-.023	.464***	.337***
14. 안전애착	.384***	.185***	-.233***	-.009	-.171***	-.466***	-.521***	.055	.117***	.168***
15. 미래시간관	-.238***	-.226***	.244***	.071	.161***	.383***	.445***	.019	.184***	.150**
16. 목표추구활동	-.352***	-.260***	.277***	-.031	.279***	.511***	.622***	-.153*	-.044	-.090*
17. 경력개발활동	.237***	-.258***	.226***	-.022	.271***	.536***	.548***	-.206***	.035	-.061
18. 가족지원활동	-.238***	-.282***	.226***	.049	.193***	.374***	.408***	-.087	.053	.005
19. 사회봉사활동	-.413***	-.296***	.228***	-.035	.298***	.542***	.587***	-.079	.065	-.020
평균	1.70	73.62	.599	1.99	1.33	2.61	.91	2.76	3.39	3.69
표준편차	.46	5.55	.499	.112	.623	1.32	.845	.887	.84	.73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성별									
2. 연령									
3. 배우자유무									
4. 자녀유무									
5. 월소득									
6. 학력									
7. 일자리유무									
8. 일하는 시간									
9. 외향성									
10. 우호성									
11. 성실성	-								
12. 안정성	.013	-							
13. 개방성	.440***	.097*	-						
14. 안전애착	.140**	.185***	-.263***	-					
15. 미래시간관	.206***	.057	.414***	-.317***	-				
16. 목표추구활동	.097*	.036	.393***	-.393***	.448***	-			
17. 경력개발활동	.107*	.071	.452***	-.375***	.338***	.649***	-		
18. 가족지원활동	.103*	-.002	.313***	-.312***	.346***	.539***	.487***	-	
19. 사회봉사활동	.077	.007	.390***	-.44***	.414***	.593***	.622***	.512***	-
평균	3.81	3.21	2.88	3.92	2.74	2.52	2.42	2.19	2.25
표준편차	.73	.75	.81	.73	1.12	.96	1.14	1.01	.94

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된 부분(1-8변)은 Spearman 상관, 나머지는 Pearson 상관.

\* $p < .05$ , \*\*  $p < .01$ , \*\*\*  $p < .001$  양방검증,  $N = 471$ , 성별은 남 1, 여 2로 코딩되었고, 배우자 유무, 자녀유무, 일자리 유무는 1 없음, 2 있음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음. 일하는 시간은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들이 주당 일하는 시간으로 측정되어 일하는 사람만이 응답하여 둘 간의 상관이 없음.

생산적 노년의 4차원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그 관련성의 방향이 서로 반대였다. 즉 안전애착 정도는 생산적 노년과 모두 유의하게 부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고( $r=-.39, -.38, -.31, -.44$ ), 미래시간관은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r=.45, .34, .35, .41$ ).

#### 생산적 노년에 대한 안전애착, 5요인 성격, 미래시간관점의 영향력 분석

안전애착, 성격, 미래 시간관과 생산적 노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난후에도 안전애착이나, 5요인성격, 미래시간관이 생산적 노년을 더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위계적 회귀분석은 단계 1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단계 2는 안전애착, 단계 3은 5요인성격, 단계 4는 미래시간관점을 차례로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경우의 설명량 증가분과 각 변인의 설명량 정도를 비교하였다. 단계 5는 미래시간관점이 성격변인들 및 안전애착과 상호작용하여 생산적 노년을 설명해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델 4에 미래시간관점을 중심화(centering) 시킨 변인과 성격 및 안전애착과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여 이 상호작용 변인들이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변량을 추가해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일하는 시간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안전애착, 5요인성격과 미래시간관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생산적

노년의 4하위요소 중에 가족지원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5). 목표추구활동에 대해서는 5요인 성격만이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의 설명량을 추가해서 설명해주었고(표 2), 경력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안전애착을 제외하고 5요인성격과 미래시간관점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설명량을 추가해서 설명해주었다(표 3). 생산적 노년의 4개 하위요소를 한 개의 요인점수로 구성한 생산적 노년 전체에 대해서는 안전애착, 5요인성격, 미래시간관이 모두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한편 미래시간관과 5요인성격간의 상호작용변인들과 안전애착과 미래시간관과의 상호작용변인이 생산적 노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분석한 5단계는 생산적 노년을 측정하는 어떤 변인에 대해서도 유의한 설명량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래시간관점과 안전애착 및 5요인성격간의 상호작용은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들이 생산적 노년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목표지향 활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학력과 일자리 유무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예측변인 중에서는 외향성과 성실성, 개방성, 미래시간관점이 목표추구 활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노인들의 경력개발활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학력, 일자리 유무, 예측변인 중에서는 성실성과 개방성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표 3). 노인들의 가족지원활동을 설명해주는 데 유의미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연령과 일자리 유무였으

표 2. 목표추구활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step1				
성별	-.08			
연령	-.02			
배우자유무	.04			
자녀유무	-.02			
월소득	.05			
학력	.11*			
일자리유무	.50***			
step2				
안전애착		-.05		
step3				
외향성			-.13**	
우호성			-.07	
성실성			.14**	
개방성			.21***	
안정성			.04	
step4				
미래시간관점				.15***
<hr/>				
$R^2$	.42	.42	.47	.49
adjusted $R^2$	.41	.41	.46	.47
$F$	48.35***	42.49***	31.40***	31.03***
$\Delta R^2$	.42	.00	.05	.02
$\Delta F$	48.35***	1.25	8.30***	14.34***

주. 모형의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05, \*\* <.01, \*\*\* <.001

표 3. 경력개발활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step1				
성별	.09			
연령	.00			
배우자유무	.00			
자녀유무	-.01			
월소득	.03			
학력	<b>.32***</b>			
일자리유무	<b>.40***</b>			
step2				
안전애착		-.09		
step3				
외향성			-.04	
우호성			-.13	
성실성			<b>.12*</b>	
개방성			<b>.26***</b>	
안정성			.06	
step4				
미래시간관점				.02
<hr/>				
$R^2$	.37	.37	.44	.44
adjusted $R^2$	.36	.36	.42	.42
$F$	38.53***	34.37***	27.12***	25.15***
$\Delta R^2$	.37	.00	<b>.06</b>	.00
$\Delta F$	38.53***	3.66	10.10***	.18

주. 모형의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05, \*\* <.01, \*\*\* <.001

표 4. 가족지원활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step1				
성별	-.07			
연령	<b>-.16***</b>			
배우자유무	-.04			
자녀유무	.03			
월소득	-.03			
학력	.12			
일자리유무	<b>.28***</b>			
step2				
안전애착		<b>-.11*</b>		
step3				
외향성			-.02	
우호성			-.01	
성실성			.08	
개방성			<b>.16**</b>	
안정성			.01	
step4				
미래시간관점				<b>.13**</b>
<hr/>				
$R^2$	.20	.21	.24	.25
<i>adjusted R<sup>2</sup></i>	.19	.20	.22	.23
$F$	17.00***	15.53***	11.25***	11.10***
$\Delta R^2$	.20	<b>.01</b>	<b>.03</b>	<b>.01</b>
$\Delta F$	17.00***	4.38*	3.68**	7.17**

주. 모형의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05, \*\* <.01, \*\*\* <.001

표 5.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step1				
성별	<b>-.16***</b>			
연령	<b>-.08*</b>			
배우자유무	.00			
자녀유무	-.02			
월소득	.04			
학력	<b>.15**</b>			
일자리유무	<b>.41***</b>			
step2				
안전애착		<b>-.12**</b>		
step3				
외향성			.02	
우호성			.02	
성실성			.04	
개방성			<b>.14**</b>	
안정성			.00	
step4				
미래시간관점				<b>.09*</b>
<hr/>				
$R^2$	.42	.43	.46	.46
adjusted $R^2$	.41	.42	.44	.44
$F$	47.14***	42.77***	29.30***	27.79***
$\Delta R^2$	.42	<b>.01</b>	<b>.03</b>	<b>.01</b>
$\Delta F$	47.14***	7.51**	4.88***	4.85*

주. 모형의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05, \*\* <.01, \*\*\* <.001

표 6. 생산적 노년(요인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step1				
성별	-.06			
연령	-.06			
배우자유무	.01			
자녀유무	-.01			
월소득	.03			
학력	<b>.22***</b>			
일자리유무	<b>.50***</b>			
step2				
안전애착		<b>-.10**</b>		
step3				
외향성			-.06	
우호성			-.07	
성실성			<b>.12**</b>	
개방성			<b>.24***</b>	
안정성			.03	
step4				
미래시간관점				<b>.12**</b>
<hr/>				
$R^2$	.52	.52	.58	.59
adjusted $R^2$	.51	.51	.57	.57
$F$	70.31***	63.16***	48.10***	46.25***
$\Delta R^2$	.52	<b>.01</b>	<b>.06</b>	<b>.01</b>
$\Delta F$	70.31***	6.86**	11.99***	9.92**

주. 모형의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05, \*\* <.01,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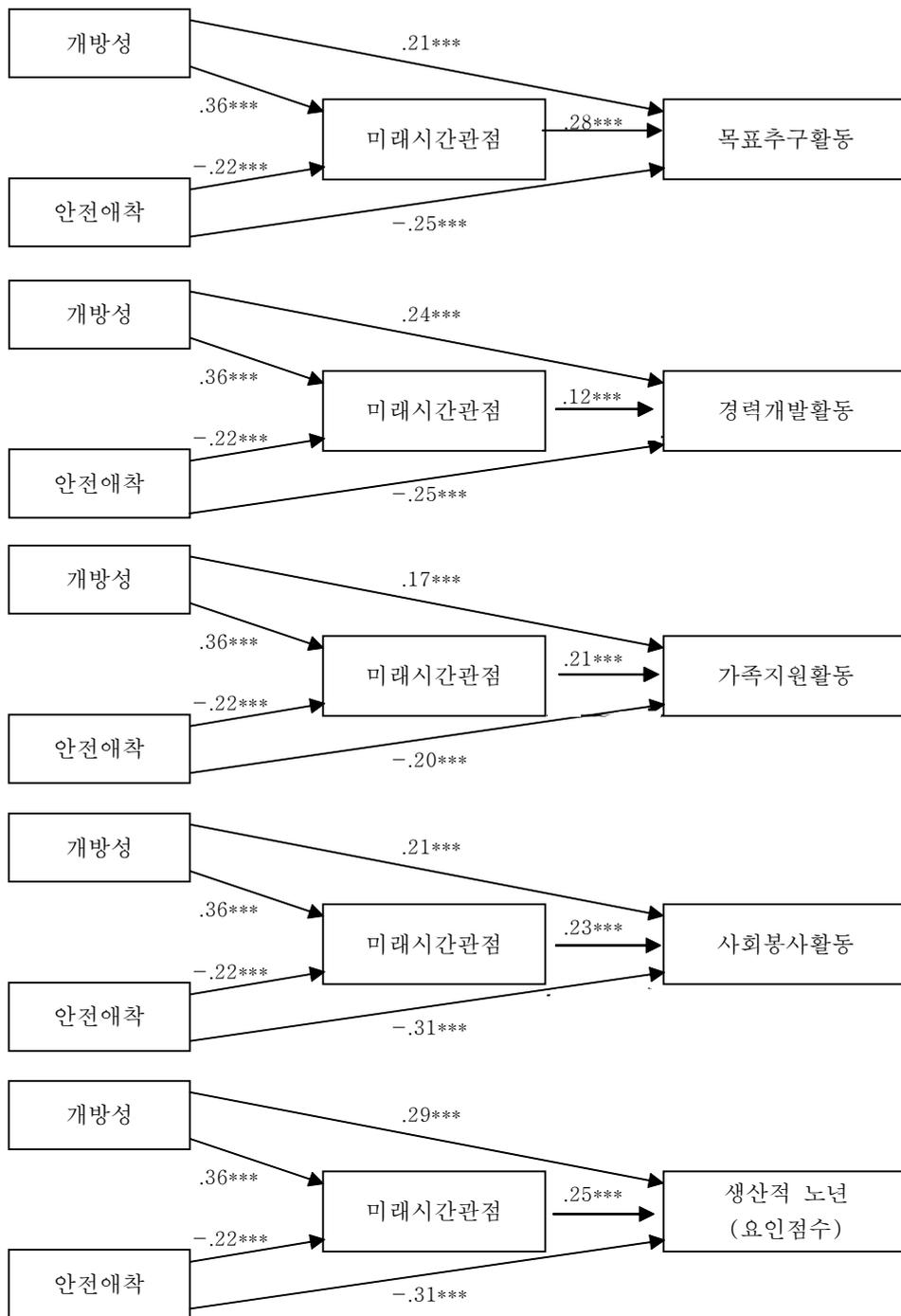
며, 예측변인 중에서는 안전애착, 개방성과 미래시간관이 노인들의 가족지원활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었다(표 4). 사회봉사활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였으며, 예측변인 중에서는 안전애착, 개방성과 미래시간관이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었다. 생산적 노년 전체에 대해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학력과 일자리 유무, 예측변인 중에서는 안전애착, 성실성, 개방성 및 미래시간관점이었다. 생산적 노년을 가장 일관되게 예측해주는 변인은 학력과 일자리 유무 그리고 안전애착, 개방성 및 미래시간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방성, 안전애착, 미래시간관점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련성

5요인 성격, 안전애착, 미래 시간관점은 상호 관련되는 변인들이다. 5요인 성격 중에서 생산적 노년과 가장 큰 관련성을 보이는 개방성은 특히 안전애착, 미래시간관점과 상호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어(상관분석에서 안전애착과 개방성간의 상관은 -.26, 개방성과 미래시간관간의 상관은 .42, 안전애착과 미래시간관간의 상관은 -.32로 모두 유의함), 미래 시간관점이 개방성과 안전애착이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과정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분석해보기 위해 개방성, 안전애착을 미래시간관점이 매개하여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고 이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생산적 노년의 4가지 하위요인과 이 요인점수를 함께 생산적 노년이라고 설정한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 구조모형을 분석하고, 모형의 완전매개효과와 부분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모형의 모든 계수는 유의하였다. 그림 1에 제시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포화모형으로 구성된 모델인 경우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과 자유도가 0이었고, CFI, TLI, GFI 등의 부합도 지수는 모두 1이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모형의 간명도를 측정하는 RMSEA지수는 기준(.06미만 일 것)에 부합하지 않았으나(Hu & Bentler, 1999), 본 연구모형이 자유도가 0인 포화모델인 탓으로 여겨진다. 모형에 제시된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개방성, 안전애착, 시간관점과 생산적 노년의 요인전체 및 목표추구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의 4가지 하위요인들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 하였다(그림 1, 표 7). 또한 미래시간관점이 개방성, 안전애착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MOS에 있는 편향을 조정한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미래시간관점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그림 1, 표 8). MacKinnon, Lockwood 및 Williams(2004)에 따르면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통해, 편향을 조정한 신뢰구간을 적용한 매개효과의 분석이 여러 매개효과 분석법 중 가장 통계적 검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신현숙, 박유미 및 김유미(2012)의 연구에서 이 분석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추정치들은 모두 편향치를 교정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



주. 모형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05, \*\* <.01, \*\*\* <.001

그림 1. 개방성, 안전애착, 미래시간관점 및 생산적 노년 활동 간의 관계

표 7. 생산적 노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미래시간관점 ← 개방성	.49	.36	8.38***
미래시간관점 ← 안전애착	-.34	-.22	-5.29***
생산적노년(요인) ← 미래시간관점	.21	.25	6.28***
생산적노년(요인) ← 개방성	.33	.29	7.33***
생산적노년(요인) ← 안전애착	-.39	-.31	-8.13***
목표추구활동 ← 미래시간관점	.24	.28	6.51***
목표추구활동 ← 개방성	.25	.21	4.94***
목표추구활동 ← 안전애착	-.33	-.25	-6.06***
경력개발활동 ← 미래시간관점	.12	.12	2.72**
경력개발활동 ← 개방성	.47	.24	7.80***
경력개발활동 ← 안전애착	-.38	-.25	-5.96***
가족지원활동 ← 미래시간관점	.19	.21	4.50***
가족지원활동 ← 개방성	.22	.17	3.76***
가족지원활동 ← 안전애착	-.28	-.20	-4.49***
사회봉사활동 ← 미래시간관점	.19	.23	5.24***
사회봉사활동 ← 개방성	.25	.21	5.05***
사회봉사활동 ← 안전애착	-.40	-.31	-7.64***

주 1. 생산적 노년(요인)은 4가지 생산적 노년 하위요소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점수임, 2. 여기서 t값은 AMOS분석에서 도출된 C.R값을 의미함.

표 8. 생산적 노년에 대한 개방성, 안전애착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

DV	IV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생산적노년(요인)	개방성	.43	.33	.10	(.07, .14)
	안전애착	-.46	-.39	-.07	(-.11, -.04)
목표추구활동	개방성	.40	.49	.12	(.08, .17)
	안전애착	-.41	-.33	-.08	(-.13, -.05)
경력개발활동	개방성	.53	.47	.06	(.02, .11)
	안전애착	-.43	-.38	-.04	(-.08, -.01)
가족지원활동	개방성	.31	.22	.09	(.05, .14)
	안전애착	-.34	-.28	-.06	(-.11, -.03)
사회봉사활동	개방성	.34	.25	.09	(.06, .14)
	안전애착	-.46	-.40	-.07	(-.11, -.04)

주 1. 생산적 노년(요인)은 4가지 생산적 노년하위요소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점수임. 주 2. 위 수치는 AMOS에서 bootstrapping기능을 적용한 분석 결과로 나온 추정치이고, 신뢰구간은 편향치를 교정한(bias corrected) 신뢰구간을 의미함. 3. 간접효과는 미래시간관이 매개하여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추정치를 의미함.

타났다. 즉, 개방성과 안전애착이 미래시간관점을 매개로 하여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는 생산적 노년의 4요인을 요인점수로 만들어 분석한 생산적 노년전체뿐만 아니라 생산적 노년의 4가지 하위요소인 목표추구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을 각기 구분하여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모형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개방성과 안전애착경향은 생산적 노년을 직접설명하기도 하고, 미래시간관점을 통한 간접적인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여준다.

## 논 의

본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적극적인 삶, 특히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생산적 노년은 4가지로서 첫째, 목표추구활동을 하는 것, 둘째, 경력개발활동을 하는 것, 셋째, 가족 지원활동을 하는 것, 넷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 네 가지 활동들은 모두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노년을 보내는데 필요한 활동들로 알려진 활동들이다(Caro 등, 1993; 이주일 등, 2011). 이런 네 가지 생산적 노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들은 어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시간관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 생산적 노년을 결정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예상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노인들의 생산적 노년과 관련이 있었다.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월 소득, 학력, 일자리 참여 유무, 일하는 시간이 모두 생산적 노년과 관련이 있었다.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목표추구활동, 경력개발활동, 관계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 모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적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산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적 노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와 같이 일부나마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일수록 생산적 노년에 더 참여 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활동, 특히 목표달성활동과 경력개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Burr, Caro & Moorhead, 2002)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도 심리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 및 사회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ow-Howell, Hong & Tang, 2009). 따라서 노인들로 하여금 생산적 노년을 보내게 하려면 개인자신, 가족 및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에서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으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유무

는 본 연구에서 생산적 노년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자녀가 있었기 때문인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생산적 노년에 미치는 자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유무 이외에 자녀수와 생산적 노년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이 변인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비해 배우자 유무는 생산적 노년과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의 삶에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생산적 노년에 대한 안전애착, 5요인 성격 및 미래시간관점의 영향

회귀분석결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간에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비중의 차이를 보여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학력과 일자리 참여유무가 일관되게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예측변인 중에서는 안전애착, 개방성 및 미래시간관이 생산적 노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결정요인들을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목표지향적인 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도 특히 학력이 중요하였는데, 이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참여 사업 중에는 고학력을 요구하는 분야들(예, 숲 생태 해설사 및 문화재 해설사 등)이 많기 때문이며, 고학력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저학력자들보다 사회참여를 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Kim, Kang, Lee, & Lee, 2007). 또한 노인들이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느냐의 유무가 생산적 노년과 아주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의 유무를 넘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존 연구(김진욱, 손지윤, 2009)에서와 같이 여러 면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나서 안전애착, 5요인성격 및 미래시간관점이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양이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5요인 성격은 일관되게 생산적 노년의 4가지 하위요인, 즉 목표추구활동, 가족지원활동, 경력개발활동,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설명량을 증가시켜주었다. 또한, 미래시간 관점은 경력개발활동을 제외하고 목표추구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의 설명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켜주었다. 한편 안전애착은 가족지원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설명량을 증가시켜주었다. 5요인성격 중에서는 특히 개방성만이 생산적 노년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를 일관성 있고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 결과는 성격변인, 특히 개방성이 노인이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개인의 특성, 경제적 여건, 경제상태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나서도 개인이 가진 성격특성 특히 개방성에 따라 목표지향 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미래시간 관점은 목표추구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노인들이 미래시간관점을 갖고 있을수록 목표추구적인 활동, 가족지원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안전애착은 가족지원활동과 사회봉사활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애착을 형성하지 못할수록 가족지원활동을 더 하려고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더 하려고 한다는 것, 또는 안전애착이 형성되었을수록 이런 행동을 덜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Kims 등(2007) 및 Hendricks와 Cutler(200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5요인성격 중에서 목표추구 활동에는 개방성 이외에도 외향성과 성실성이, 경력개발 활동에는 성실성이 유의미하게 설명력을 증가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안정성과 우호성은 생산적 노년을 측정하는 4요인 중 어느 요인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5요인성격과 미래시간관 및 안전애착과 미래시간관의 상호작용도 생산적 노년의 어느 변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시간관은 개방성 및 안전애착이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경로를 조절하기보다는 매개하여 설명해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안전애착과 개방성과 미래시간관은 생산적 노년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노인일수록 생산적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많으며, 안전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굳이 생산적 노년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

록 생산적 노년을 보내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시간관은 개방성 및 안전애착과 상호작용하여 생산적 노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개방적 성격, 안전애착, 미래시간관점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

앞의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보았듯이 개방적 성격, 안전애착, 미래시간관과 생산적 노년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 관계는 보다 더 나아가 인과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관분석에서 이 세 변인은 상호 관련성이 높았으며, 생산적 노년의 4가지 활동요인들과도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성격요인과 안전애착이 미래시간관과 상호작용하여 생산적 노년을 설명할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어떤 생산적 노년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세 변인이 생산적 노년을 설명해주는 경로에 미래시간관이 매개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가 있다. 즉 개방적인 사람은 미래를 보다 길게 바라보고, 노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수록 보다 미래를 길게 보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애착을 형성할 수 없는 노인들은 현상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다 길게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였는데, 예상대로 미래시간관은 개방성과 생산적 노년 간을 부분매개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애착과 생산적 노년간도 부분매개

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는 생산적 노년을 4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분석할 경우에도 거의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Gregory 등, 2010; Hogan 등, 2013; Soubelet & Salthouse, 2010)과 같이 개방성이 높은 노인들이 미래를 보다 길게 조망하게 되고, 생산적 노년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고 도전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의 경력을 보다 발전시키려고 하며,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에도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성격변인들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젊은 사람들의 직무만족이나 삶의 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성실성이나 우호성(Jex & Britt, 2008), 외향성(Barrick & Mount, 2005)보다 개방성이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ennis와 Thomas(2002)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며 활발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로 호기심을 들었다.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자세, 항상 마음을 열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이런 자세와 태도가 행동으로 표출될 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개방성이 생산적 노년활동을 보내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런 특성을 가진 노인들은 미래를 보다 길게 조망하게 되고 자신이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여

기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안전애착과 미래시간관 및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는 일관되게 부적 상관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도 경로계수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안전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일수록 미래에도 본인이 할 일이 많고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하며,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 또한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의 서론에서 안전애착이 생산적 노년에 주는 영향이 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는 Kims 등(2007), Hendricks와 Cutler(2004)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안전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Maslow(1998)가 제안한 안전함이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안전애착이 미래시간관 및 생산적 노년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일 가능성도 있다. 즉 본 연구 참여자들은 반수 이상이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노인전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 연구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5요인성격특성 중에 개방성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개방성만큼

생산적 노년과 높은 관련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준 성실성에도 개방성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안전애착과 성실성은 .14, 성실성과 미래시간관은 .21, 안전애착과 미래시간관은 -.32로 모두 유의함). 추후에는 이 가능성을 보기 위해 성실성, 안전애착을 미래시간관점이 매개하여 생산적 노년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고 이 가능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생산적 노년을 보내는 것을 하나의 **善**, 또는 진리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생산적 노년이 항상 선이며 진리인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존재한다(Moody,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4가지 생산적 노년활동이 모두 노인들에게 유의미한 활동들이기는 하나, 이들 각각이 노인들의 삶에 주는 영향에는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노년의 각 활동이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기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들이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우선 본연구의 표본이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을 임의적으로 4:6 정도로 배분하여 조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노인은 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었고, 일하지 않는 노인들은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나오나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대다수가 최소한 본인의 일상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었으므로 이들의 특성이 전국적인 노인을 대표하거나 일반적인 노인들

의 상황을 전적으로 대표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표본들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여성 보다는 남성, 낮은 연령,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월 소득이 높고 고학력자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개방성이 높았고, 때로 우호적이기 보다는 적대적인 성향을 보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노인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안전애착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한계점은 미래시간관의 측정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문항으로 미래시간관을 측정한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차원의 미래시간관점이 측정되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노인들을 생산적인 삶의 한 주제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이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한다. 노인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항시 부양해야 하는 수혜의 대상이 아니며, 충분히 스스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이다. 노인이 생산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모두의 책임이다.

## 참고문헌

김민희 (2008). 한국인의 지혜 개념 탐색과 중노년기 삶에서 지혜의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

- 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범, 박준식 (2006). 한국 노인의 가족 관계망과 삶의 만족. 한국노인의 삶의 질(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pp.39-59).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 김원배 (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449-470.
- 김진욱, 손지윤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295-1311.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매일경제 (2013.1.28). "남 취업 60대 이상 > 20대.. 고령, 장년층 생계취업 급증, 여성 취업자도 50대>30대.. 청년층 스펙쌓기 집중".
- 박기남 (2006). 성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한국노인의 삶의 질(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pp.61-81).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 성혜영, 조희선 (2005).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안효철 (2005).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노혜미 (2006). 성격이 실직자들의 행동, 생애만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07-124.
- 이주일 (2004). 노인의 대인 애착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의 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1-29.
-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유 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
-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 유 경 (2009). 욕구충족 및 통제감 지각이 생애후기 성인의 대인애착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애착 선행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81-101.
-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17-346.
- 임은기, 정태연 (2009). 한국노인의 행복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한국노년학*, 29(3), 1141-1158.
- Barnes-Farrell, J. L., & Matthews, R. A. (2007). Age and work attitudes, In K. S. Schultz & G. A. Adams(eds), *Ageing and work in the 21st century*(pp.139-162). New Jersey, U.S.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arrick, M. R., & Mount, M. K. (2005). Yes, personality matters: Moving on to more important matters. *Human Performance*, 18, 359-372.
- Barrick, M. R., Mitchell, T. R. & Stewart, G. L. (2003). Situational and motivational influences on trait-behavior relationships. In M. R. Barrick & A. M. Ryan (Eds.), *Personality and work* (pp.60-82). San Francisco, USA:

- Jossey-Bass.
- Bennis, W. G., & Thomas, R. J. (2002). *Geeks & Geezers* (시대와 리더십, 신현승역 2003). 서울: 세종연구원.
- Bilde, J. D., Vansteenkiste, M & Lens, W. (2012).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rough the len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Learning and Instruction, 21*, 332-344.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III. Lo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press.
- Bradley, J. M., & Cafferty, T. P. (2001). Attachment among older adults: Current issu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2), 200-201.
- Burr, J. A., Caro, F. G., & Moorhead, J. (2002). Productive aging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 of Aging Studies, 16*, 87-05.
- Caro, F. G., Bass, S. A., & Chen, Y. P. (1993). Introduction: achieving a productive ageing society. In S. A. Bass, F. G. Caro, & Y. P. Chen (Eds.) *Achieving a productive age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 Carstensen, L. L., Iss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 165-181.
- Choi, L. H. (2003). Factors affecting volunteerism among older adult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2*(2), 179-196.
- Chopik, W. J., Edelstein, R. S. & Fraley, R. C. (2013).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age difference in attachment from early adulthood to old age. *Journal of Personality, 81*(2), 171-183.
- Cox, K. S., Witt, J., Olson, B., & McAdams, D. P. (2010). Generativity, the big five, and psychosocial adaptation in middle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78*(4), 1185-1208.
- Feeney, B. C. & Thrush, R. L. (2010). Relationship influences on exploration in adulthood: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a secure ba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57-76.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Deary, F. De Fruyt, & F. Ostendorf (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pp.7-28). Tilberg, The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Gregory, T., Nettlebeck, T., Wilson C. (2010). Openness to experience, intelligence, and successful ag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895-899.
- Hendricks, J., & Cutler, S. J. (2004). Volunteerism and socioemotional selec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 S251-S257.
- Hogan, M. J., Staff, R. T., Bunting, B. P., Deary I. J. & Whalley, L. J. (2012). Openness to Experience and Activity Engagement Facilitate the Maintenance of Verbal Ability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7*(4), 849-854.
- Hu, L.-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ohnson, J. W. (2003).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job performance. In M. R. Barrick & A. M. Ryan (Eds.), *Personality and work* (pp.83-120). San Francisco, USA: Jossey-Bass.
- Kim, J., Kang, J. H., Lee, M. A. & Lee, Y. (2007).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Korea,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2B(1), 69-73.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ism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ang, F. R., & Carstensen, L. L. (1994). Close emotional relationships in late life: Further support for proactive aging in the social domain. *Psychology and Aging*, 9, 315-324.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 99-128.
- Maslow, A. H. (199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3rd. MA, USA: John Wiley & Sons.
- Moody, H. R. (2001). Productive ageing and ideology of old age. In Productive Ageing. In N. Morrow-Howell, J. Hinterlong, & M. Sherraden(Eds), *Productive ageing: concepts and challenges*.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rrow-Howell, N., Hong, S. I. & Tang, F. (2009). Who Benefits From Volunteering? Variations in Perceived Benefits. *The Gerontologist*, 49(1), 91-102.
- Okun, M. A. & Michel, M. A. (2006). Sense of community and being a volunteer among the young-old.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2), 173-188.
- Rowe, J., & Kahn, R.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 Soubelet, A. & Salthouse, T. A. (2010). The role of activity engagement in the relations between openness/intellect and cogni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896-961.
- Stahl, S. T., & Patrick, J. H. (2011). Adults' future time perspective predicts engagement in physical activit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4), 413-416.
- Trafford, A (2004). *My Time: Making the Most of the Rest of Your Life (나의 남은 인생의 기회, 오해 경역, 2004)*, 서울: 마고북스.
- Walker, T. L., & Tracey, T. J. G. (2012). The role of future time perspective in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 150-158.
-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26, 215-240.

1차 원고접수 : 2013. 04. 08

2차 원고접수 : 2013. 05. 20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3

## Impacts of secure attachment, 5 factor personality, future time perspective on productive ageing

Jull Rie

Hallym University

It is hope and need of society that most of people will keep their life productive after becoming elderly. In this study, we want to find demographic-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for productive ageing. In our study, productive ageing were constructed as 4 factors, goal pursuit activities, career development activities, family support activities, and society volunteering activities. We collected data from 471 elderly beyond 65. Sex, age, spouse existence, income by month, education, work or non-work, working time wer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productive ageing. And openness to experience and conscientious personality, secure attach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 wer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productive ageing. Especially, big five personality and future time perspective impacted significantly on productive ageing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sociological factors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penness to experience and future time perspective were important consistently for all productive ageing activities. When we analyzed causal relationship among openness to experience, secure attachment, future time perspective and productive ageing through AMOS, future time perspective 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openness to experience and productive ageing, and relationship between secure attachment and productive ageing. Also, openness to experience, secure attachment, and time perspective all had a big impact on productive ageing directly.

*Key words : Productive ageing, Goal pursuit, Career development, Family support, Volunteering, Big five personality, Openness to experience, Secure attachment, Future time perspective*